

## 수출규제 관련 중국동향(8.5~7)

### □ [주요 언론 동향]

- 중국의 주요 관영 매체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조치 및 한국 내 반일감정 고조 분위기 등을 보도
- o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으로 우리정부가 발표한 ‘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 강화방안’의 주요 내용과 국방부의 독도 방어 훈련 실시 계획 등을 인용 보도<sup>1)</sup>
- o 또한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, 도쿄 개최 예정인 29회 미스월드 선발 대회 불참(문화), 일본 여행 및 항공노선 축소(관광) 등 반일감정 고조와 관련된 상황을 보도<sup>2)</sup>

### □ [업계 반응]

- 업계에서는 해외 리서치 보고서나 한국의 언론보도를 인용하여,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가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에 대해 분석
- o IHS Markit 중문판은 한일 갈등으로 메모리 제조가 중단될 위기라는 우려가 있으나, 반도체 산업에 대한 단기적(3~6개월) 영향은 미미하며 6~12개월 내에 삼성 및 SK 하이닉스가 일본기업이 아닌 새로운 대체 공급선을 찾을 것으로 전망<sup>3)</sup>
- \* 2019년 상반기의 D램 재고과잉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2019년 3분기까지 공급 과잉인 상황이며 반도체 소재 공급이 3~6개월 내 메모리 생산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매우 제한적
- o 또한 중앙일보를 인용하여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당장 큰 영향을 받지는

---

1) 「韩国推进产业结构改革应对日韩贸易摩擦」, 『新华社』(2019. 8. 6); 「韩日贸易摩擦持续升级」, 『人民日报』(2019. 8. 6)  
2) 「文化、旅游、军事领域反日情绪高, 日韩矛盾全方位延烧!」, 『中国新闻网』(2019. 8. 7)  
3) 「IHS Markit: 日本对韩国化学品制裁对存储器的市场影响」, 『IHS科技』(2019. 8. 5)

않지만, 포토레지스트(감광액)의 경우 타격이 예상되며 자동차, 화학 업종에서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<sup>4)</sup>

---

4) 「被日本移除白名单, 韩国半导体产业将受何影响?」, 『电子工程世界』(2019. 8. 6)